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I. 미중 무역동향과 트럼프의 대중 통상 공약

- | | |
|---|------------------|
| 1 | 1. 미중 무역 동향 |
| 7 | 2. 트럼프의 대중 통상 공약 |

II. 주요 통상 이슈 점검

- | | |
|----|-------------|
| 13 | 1. 환율조작국 지정 |
| 17 | 2. 무역구제 |
| 19 | 3. 불공정행위 |
| 20 | 4. 경제협력 |
| 21 | 5. 통상협상 |

III. 미중 통상관계 시나리오

- | | |
|----|-------------|
| 23 | 1. 4개 시나리오 |
| 24 | 2. 시나리오별 내용 |

IV.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과 대응시사점

- | | |
|----|----------------|
| 25 | 1. 미중관계 전망과 대응 |
| 28 | 2. 사안별 영향과 대응 |

[첨부]

- | | |
|----|----------------------------|
| 32 | 1)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추이 |
| | 2), 3) 피터 나바로 NTC의장 주요 저작 |
| | 4) 미중 양국의 상호 무역특화지수(TSI) |
| | 5)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논의 및 성과 |
| | 6) 미중 통상관계 일지(2017년 1월 ~) |

요 약

□ (미중무역과 대중 공약)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무역적자 유발국

* 최대 수입상대국이자 제3위 수출상대국

○ (무역수지)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적자(3,808억 달러)의 **49.6%**(‘15년)

○ (무역구조) 미국은 최종재 중심의 대중 수입구조 유지

* 대중수입에서 최종재의 비중은 68.7%(‘16.上)로 대세계 수입(34.4%)의 2배 수준

- 중국이 미국시장 상대 최종재 생산기지로 통상갈등의 파급효과*가 큼을 시사

*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49.6%(‘15년 1~9월), 미국의 대중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43.5%(‘16년 상반기)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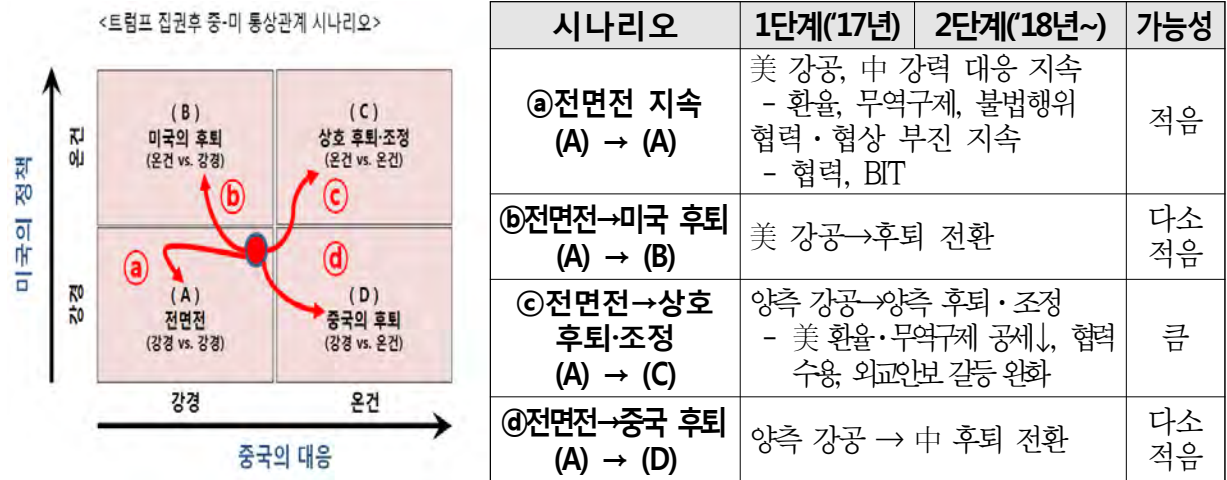
○ (대중 공약) 트럼프는 중국과 관련하여 △환율조작국 지정, △불법 보조금 제재(상계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제시

※ 정권 출범 1달 지난 2월 현재 대중 유화시그널 속 조치 구상중

□ (통상 현안 및 전망) 대략 6개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전개 예상

분야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전망
정책기조	○ 미국 우선주의 - 보호주의	○ ‘신형대국관계’ *입각 대응 * 상호인정·평화 지향 강대국간 관계	○ 갈등 후 적정관계 모색
환 율	○ ‘환율조작국’ 지정 - 지정시 징벌적 관세, 美 세이프가드 발동 등 추진	○ 부당성 지적*, 위안화 시장화 지속 추진 * 환율시장화 추진, 위안화 절하 방어용 외환보유액 소진, 위안화 SDR편입 등	○ 갈등(시도) ↔ 대응 후 적정 방안 모색
무역구제	○ 제소 확대 -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 무역구제 조치 대응 강화	○ 미국 제소 확대 → 중국 대응 확대 - 실제 효과 제한적
	○ ‘시장경제지위’ (MES) 인정 거부	○ MES 인정 요구	
불공정·불법 행위	○ 조사 및 제재 강화 - 정보 탈취, 지적권 침해등	○ 사안별 대응	○ 미국의 제재 강화
경제협력	○ 협력강화 및 사안별 대응 - 에너지源, 청정에너지등	○ 협력 강화 및 사안별 대응	○ 협력 필요성/공간 상존
통상협정	○ 미중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시 대중요구 강화	○ 신중 태도	○ 지연 가능성
	○ 기타 통상협상 관망 태도 - RCEP, FTAAP 유보적	○ 지역 통상협정 적극 추진 - RCEP, FTAAP 등	○ 아태지역 자유화 부진

□ (4개 시나리오) 미국 공세와 중국 대응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가능



□ (전망) 3번 시나리오(전면전→ 상호 후퇴·조정) 가능성이 가장 큼

- (내용) 트럼프정권 초기 통상공세를 주고 받다가 온건·타협으로 완화
 - (환율 공세) 환율조작국 지정 시도하겠으나 수정 및 타협으로 전환
 - (무역구제) 중국의 보복가능성 크고 전면적 무역보복 조치 불가능
 - (불공정·불법행위) 사안의 성격상 전면적 보복 불가능하고 중국도 대응
 - (경제협력) 상당수 중지 혹은 연기 가능성 크나 상호 필요에 따라 확대
 - (통상협정) 미중투자보장협정(BIT) 등 연기 가능성 있으나 점차 정상화
- (근거)3가지(△리더쉽, △절차·기술적 문제, △실제 효과한계 및 부작용)
 - (리더쉽) ‘미국 우선주의’ 방침상 초기 대중 강경책 불가피하나 실용적인 협상가 스타일로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 가능성 큼
 - * 통상팀 정책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피터 나바로 NTC 위원장, 실용주의자(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로 대중 압박 지속에 한계
 - (절차 및 기술적 문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바뀌어야 하고 중국 지정시 다수국 동시지정(한국, 일본, 독일 등)에 따른 부담 가중 가능성
 - (실효성 문제) 중국의 보복, 미국 인플레이 및 생산비용 상승, 환율조정에 따른 무역적자 감소 미미, 미국내 상이한 이해관계 표출, 리쇼어링효과 미미 등 문제로 환율조정 및 제재의 경제적 효과 제한적
 - * 상호 무역특화(TS)* 수준이 높아 환율변동시 상호 수출경쟁력 변화 보다는 수입물가 상승 초래

□ (한국 수출 영향) 리스크와 기회 가능성 병존

- 미중 통상갈등 격화는 수출 환경 불안정성을 높이고 우리의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으나 일부 기회 가능성도 있음
- (리스크)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 예상 및 수출환경 불안정
 - 미국의 대중 규제 발동시 우리 대중수출의 7~10%를 차지*하는 미국 수출용 대중 원부자재 수출에 타격
 - * 한국은행 추정(5%) 코트라 중국진출기업 설문조사(6.3%)(29쪽 [참고])
 - '16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계산시 123.9억 달러에 이름
 - * 산식 : 대세계 수출액(4,954억×2.5%=123.9억)
 - 대중 규제시 한국산 제품에도 규제* 발동 가능성
 - *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제도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큼
- (기회) 양국 갈등 격화에 따른 기회 가능성도 있음
 - 중국과 경합관계인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기회 확대 가능성
 -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혹은 미국산 제품의 대중 우회수출에 유리

□ 사안별 발생 가능 이슈 및 대응방안 점검

-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지정시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
- (무역구제) 반덤핑 상당수는 중국산과 한국산에 동시진행될 가능성 큼
- (경제협력) 부진할 가능성 크나 진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
 - 미중 협력 부진은 한국에 기회가 반사이익이 될 수 있음
- (통상협정) 부진속 중국 주도권 커지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 (기타 외교·안보 사안) 우리와 직접 관계 없는 남중국해, 대만문제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개입 자제 및 국제법적 해결 원칙 천명이 리스크 최소화해 유리

I. 미중 무역동향과 트럼프의 대중 통상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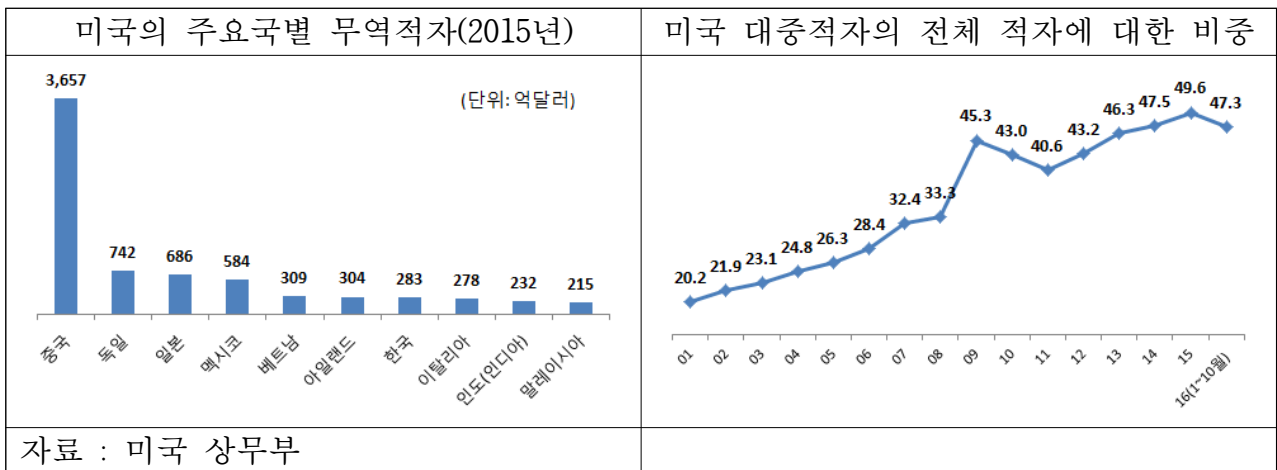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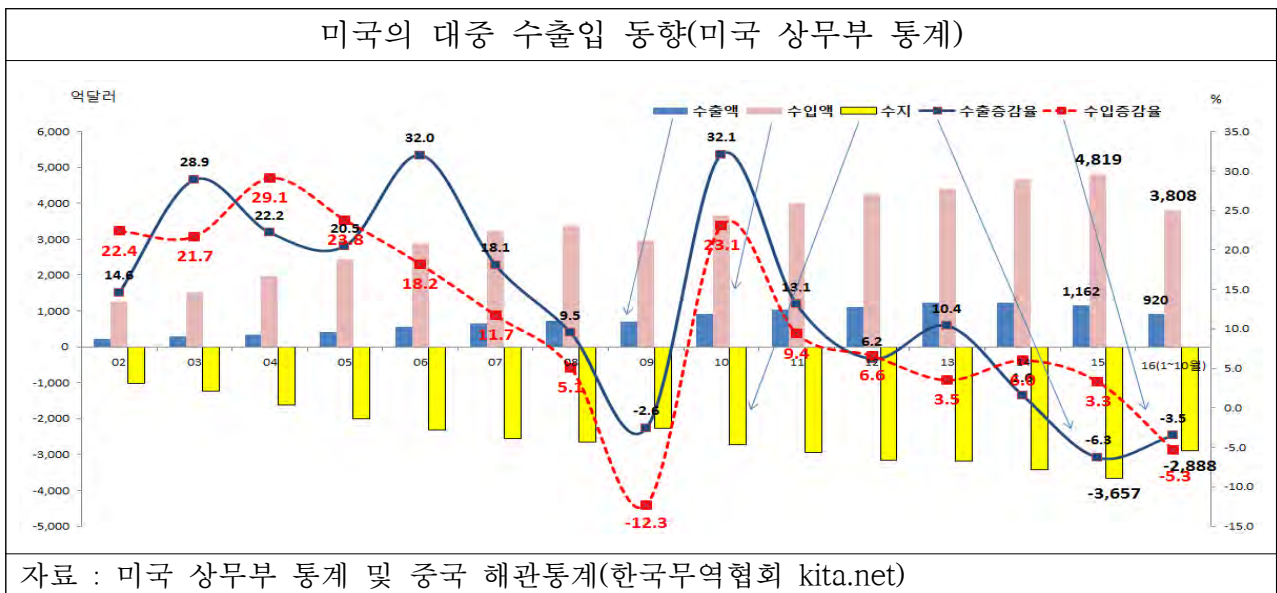
1. 미중 무역 동향

- (무역적자)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최대 무역적자 유발국으로서 선거운동때부터 트럼프 진영은 강력한 대중 무역적자 시정 의지를 표명

* 최대 수입상대국, 제3위 수출상대국('16년)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은 3,808억 달러('15년)로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49.6%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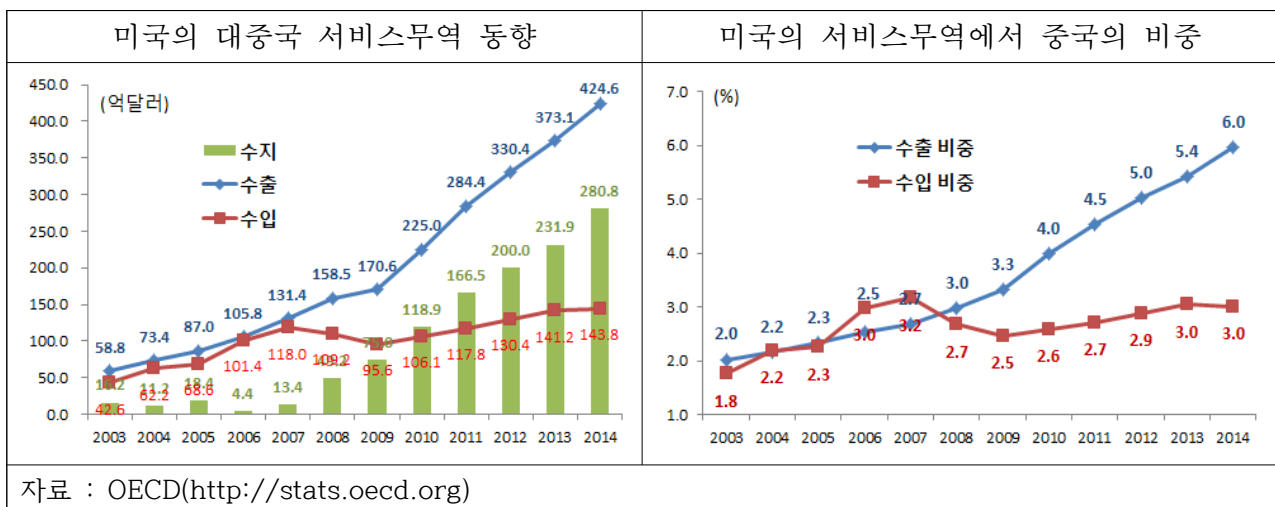
*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의 비중(%) : ('01년) 20.2% → (15년) 49.6%



□ (서비스무역*) 그러나 화물무역에서 미국이 대량의 적자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무역에서는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서비스무역(service trade) : 서비스업의 국제거래, 즉 유통이나 금융, 운송, 건설, 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

- 미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수출이 미국의 전체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현재 6.0%로 화물무역과 비슷('15년 7.7%)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 특히 서비스무역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돼 '14년 280.8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미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수지는 '07년까지 평형상태를 이루었으나 '08년 이후 미국의 흑자폭이 빠른 속도로 확대
- 미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대량 흑자는 미국의 실제 대중 무역수지가 과대평가돼 왔음을 의미
 - 다만, 미중간 경제교류의 혜택과 피해가 미국내 경제분야(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내 업종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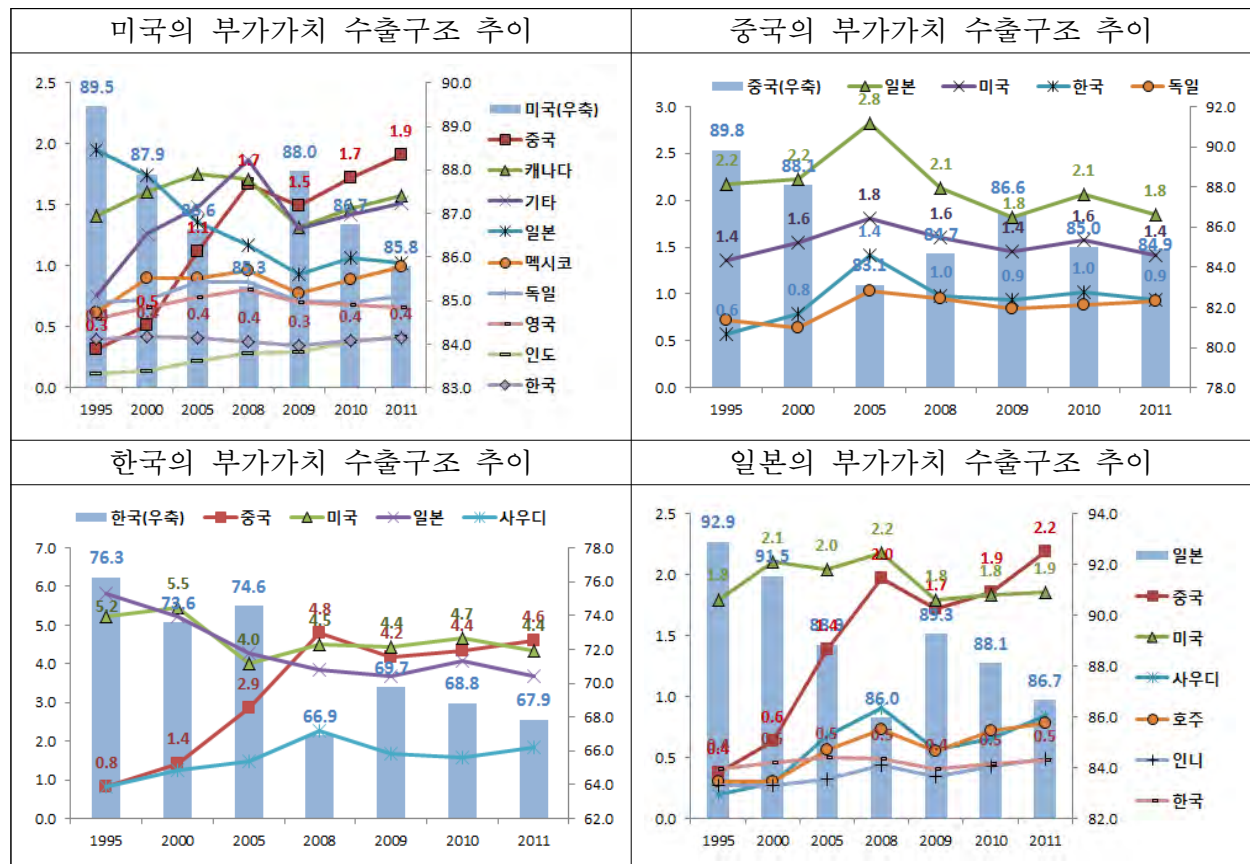


☞ [참고] 미중 양국의 부가가치무역*에서 상호 중요성

* 부가가치무역(TIVA)이란 해당국의 수출품의 실제 부가가치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 수출구조를 가리킴.

- 미국과 중국의 수출에서 상대방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중국의 대미 기여도가 미국의 대중 기여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기준 미국의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1.9%인 반면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의 기여도는 0.9%에 불과('11년 기준)
 - 이는 미국의 수출에 대해 중국산 중간재 투입이 더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시사
- 참고로, 미국외에도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수출에서도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4.6%로 매우 높으며, 일본의 경우 2.2%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부가가치무역 통계자료가 '11년까지만 공개돼 있어 최근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공단계별 무역구조등 대체 자료를 활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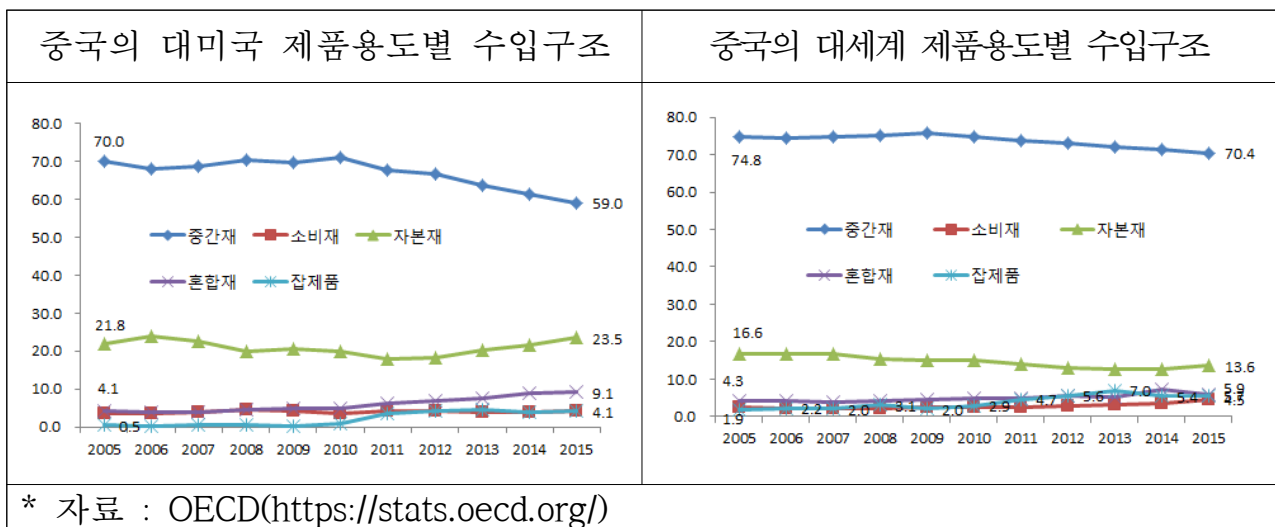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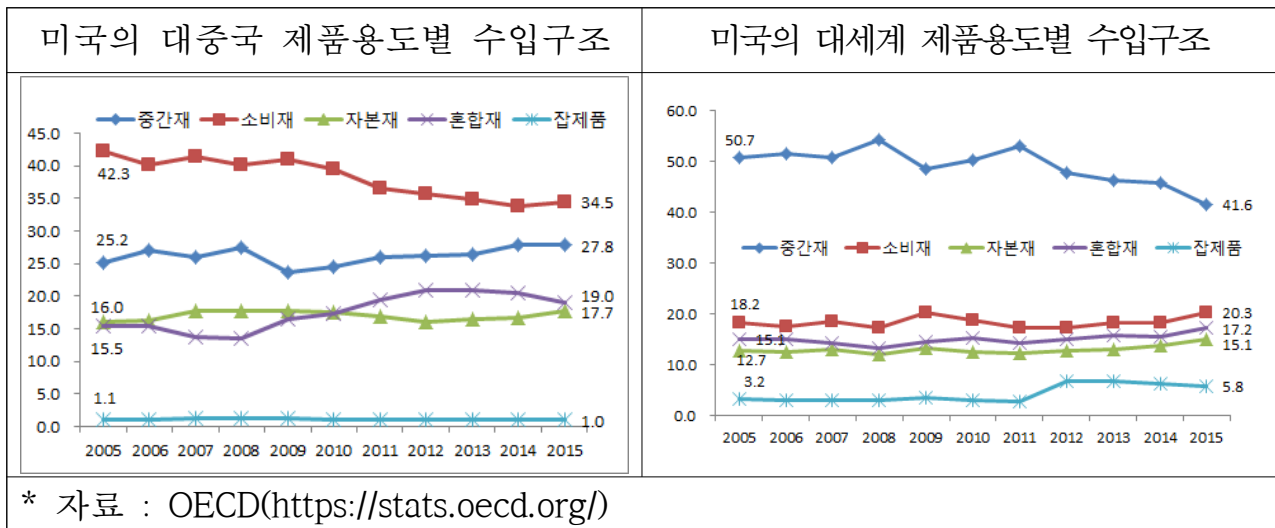
자료 : OECD(<http://stats.oecd.org>)

□ (무역구조) 미국의 대중수입은 최종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수출(중국의 대미 수입) 역시 최종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미국의 대중수입에서 최종재(소비재+자본재+혼합재+잡제품)의 비중은 대세계 수입(58.4%)보다 13.8%p나 높은 72.2%('15년)
- * 중국의 대미수입에서 최종재의 비중 역시 대세계 수입보다 10%p 가까이 적은 61.0%이며, 특히 중국의 대미 수입에서 자본재가 23.5%로 큰 비중을 차지

○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미국시장을 상대로 최종재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중 무역통상 갈등이 복잡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

- *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은 49.6%('15년 1~9월)에 이르며, 미국의 대중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43.5%('16년 상반기)에 이릅니다



□ (상호 수출경쟁력(TSI)) 미중간 무역은 업종 및 품목별로 수출(입) 경쟁력이 고도로 분리되어 있음

- 양국간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제품 분야별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어 양국간 무역이 높은 대체수준을 보이고 있음

*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 상품의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 공식은 무역특화지수=(상품의 총수출-총수입)÷(총수출+총수입)이며,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 중간수준,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 즉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의미임.

- 미국의 전체 대중 무역특화 지수 최근 10년간('05년~' 15년)간 -0.723에서 -0.624로 약간(1.1p) 하락한 가운데 중간재와 잡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용도별 품목에서 ±0.6 이상의 높은 수출(혹은 수입) 특화를 보이고 있음('15년 기준)

- 이는 양국간 무역이 상호보완적임을 의미하고, 환율변동이 생기더라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미국 대중 수입의 무역특화 지수(TSI)〉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전 체		-0.723	-0.678	-0.633	-0.601	-0.581	-0.624
중간재		-0.385	-0.318	-0.190	-0.209	-0.235	-0.355
소비재		-0.970	-0.963	-0.952	-0.938	-0.932	-0.943
자본재		-0.634	-0.613	-0.741	-0.692	-0.684	-0.721
잡제품		-0.764	-0.756	0.223	0.268	0.503	0.535
혼합재		-0.929	-0.917	-0.904	-0.826	-0.778	-0.759
주요 혼합재	컴퓨터	-0.950	-0.945	-0.947	-0.955	-0.958	-0.947
	승용차	0.486	0.568	0.878	0.977	0.981	0.938
	전화기	-0.964	-0.988	-0.957	-0.959	-0.927	-0.937
	귀금속제품	-0.756	-0.691	-0.463	-0.370	-0.599	-0.690
	포장의약품	0.886	0.706	0.717	0.759	0.718	0.610

〈미국 대세계 수입의 무역특화 지수(TSI)〉

구 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전 체		-0.314	-0.269	-0.205	-0.209	-0.192	-0.211
중간재		-0.244	-0.204	-0.141	-0.165	-0.159	-0.133
소비재		-0.534	-0.518	-0.454	-0.449	-0.428	-0.466
자본재		-0.154	-0.077	-0.145	-0.124	-0.138	-0.217
잡제품		-0.327	-0.274	0.303	0.333	0.236	0.284
혼합재		-0.515	-0.477	-0.461	-0.440	-0.451	-0.489
주요 혼합재	컴퓨터	-0.436	-0.440	-0.470	-0.498	-0.520	-0.531
	승용차	-0.605	-0.509	-0.491	-0.444	-0.464	-0.509
	전화기	-0.669	-0.787	-0.793	-0.736	-0.676	-0.670
	귀금속제품	-0.313	-0.239	-0.129	-0.103	-0.098	-0.130
	포장의약품	-0.366	-0.417	-0.337	-0.343	-0.343	-0.446

* 자료 : OECD(<https://stats.oecd.org/>) 자료(검색일 2016년 1월 20일)를 이용하여 계산

○ 실제 미국의 대중 수출입 상위 품목의 무역특화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대중수출 상위 30개 품목가운데 특화지수가 ± 6 이하인 품목은 7개에 불과('15년 기준) (첨부 참조)

* 주요 수출품목 특화지수(수출액 순위별) : 민용항공기(특화지수 1.00), 대두(0.99), 중형 가솔린 승용차(0.97), 전자집적회로(0.59), 수수(1.00), 3.0cc 이상 가솔린 승용차(1.00), 동 웨이트 및 스크랩(1.00), 양조 및 증류용 전분박과 웨이트(0.99), 반도체 제조용 기계(0.91), 무선전화기(-0.94) 등

- 미국의 대중수입 상위 30개 품목가운데 특화지수가 ± 6 이하인 품목은 하나도 없음('15년 기준)

* 주요 수입품목 특화지수(수입액 순위별) : 무선전화기(-0.94), 휴대용 컴퓨터(-0.98), 전기 접속·전환·단속기(-0.90), 삼륜차·스쿠터·페달자동차(-1.00), 자동정보처리기계 부품(-0.91), 정지형 변환기(-0.89), 비디오게임 콘솔(-1.00), 기타 컬러TV(-0.99), 기타 인쇄기 부품(-0.94), 신발류(-0.99) 등

-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이 상호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환율이 변화한다고 해서 양국간 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2. 트럼프의 대중 통상 공약

- (기본 방향)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자유화 확대에 반대하여 국내 고용 확대 및 산업보호를 강조하는 점에서 보호주의를 표방
- (목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무역적자 감소와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설정
- (수단) 다자간 무역협정(제도) 보다 양자간 · 선별적 협상과 보복 강조
 - 제도(rule) → 거래(deal)로 전환
 - 구체적으로 다자간 협정보다 무역구제(상계관세 · 반덤핑 · 세이프가드), 법적 규제(지재권 침해, 기밀탈취 등), 심지어 기업에 대한 직접적 요구(공장 이전 등)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
- (대상) 무역적자 유발 무역협정 및 국가에 집중
 - 정권 출범과 동시에 NAFTA 재협상 및 TPP 탈퇴 공포
 - 최대 무역적자 유발국인 대중국 통상공세 강화 예상

 **[참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백악관 홈페이지, '16년 1월 20일)

- (기존정책의 문제점) 장기간 내부자들과 워싱턴의 엘리트가 무역을 이용하면서 블루칼라 거주지역 공장이 문을 닫고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옮겨간 반면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산업기반 파괴
- (기본 방향) 미국의 노동자들과 사업을 무역의 우선순위에 놓고, 강력하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 놓으며, 고통에 빠진 공동체를 재생
- (정책)
 - TPP 철회 및 일부 새로운 무역 협상 개시, NAFTA 재협상
 - 무역협정 위반 및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친 국가들을 엄중하게 단속

* 자료 :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 (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http://www.whitehouse.gov/trade-deals-working-all-americans>)

□ (인사 구성) 트럼프는 선거때부터 대중 무역제재를 공언했고 반중 및 보호론자이긴 하나 실용적인 인사들로 행정권의 통상팀을 구성

- 통상팀 3대 직위중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강력한 반중국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장기간 대중 철강 반덤핑 심사에 종사해 온 로버트 라이시저를 지명
- 통상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는 대중국 무역견제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실용적인 억만장자이고 중국문화에 우호적으로 알려짐

〈트럼프 행정부 통상담당자〉

성명	직위/전직	성향/경력/저서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 67)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지명자 * 무역통상정책 총괄 신설 조직. 기존 국가안보위원회(NSC), 국가에너지위 원회(NEC) 수준의 권한 보유 전망 - UC(Irvine) 교수	반중국론자 - <The coming China wars>(06), <Death by China>(11) ¹⁾ , <Crouching Tiger>(15) 등 발간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함께 통상공약 설계
윌버 로스 (Wilbur Ross, 78)	상무장관 내정자 - 사모펀드 윌버로스컴퍼니 설립자	중국 견제 입장이나 실용적 - 철강 구조조정 주도한 기업회생 전문가 - 트럼프 경제자문, 통상공약 설계 - 한미 FTA 부정적 평가, TPP 탈퇴, NAFTA 재협상 주장
로버트 라이시저 (Robert Lighthizer, 69)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 레이건 USTR 부대표 역임 - 통상변호사(주로 대중 반덤핑 담당)	대중 강경파 - 정책, 협상, 통상법률 전문가 - 자유무역과 중국에 비판적

1) 주요 내용 : 中 WTO 가입후 美 7만여개 공장 소실, 중산층 소득 하락, 그리고 중국의 ‘8대 일자리 파괴 무기’ 지적 : ①불법 수출보조금, ②환율조작, ③지재권 위조, 침해, 절도, ④환경파괴, ⑤취약한 노동자 보건 및 안전기준, ⑥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수출 제한, ⑦약탈적 가격 및 덤핑, ⑧무역장벽(관세, 쿼터, 국산품이용, 입찰 조작 등). Death by China>(2011년)과 <Crouching Tiger>(2015년)의 상세한 내용은 [참고3]과 [참고4] 참조

□ (주요 공약) 당선 직후*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롯 3개 분야 공약을 시간대 별로 제시

- 중국 관련 조치는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및 미중 무역관계 점검, △무역상대국에 대한 유해한 관행 조사 등임

☞ **트럼프 <무역 200일 액션플랜>** (밑줄 친() 공약은 중국 관련)

○ **2017년 1월 20일 취임 직후**

- NAFTA 개정(재협상·탈퇴 등) 선언
- USTR, 멕시코와 캐나다에 NAFTA 개정 계획 통보
- 미국 해외투자위원회, 무역상대국에 대한 유해한 관행 조사

○ **취임 100일째**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및 미중 무역관계 점검
- 취임 직후 선언한 NAFTA 개정 계획 이행

○ **취임 200일째**

- NAFTA 공식 탈퇴후 멕시·캐나다와 양자 무역협정 추진

* <무역 200일 액션플랜>(인수위, '11.11.3)

- 실제로 취임과 동시에 NAFTA 재협상(1월 22일), TPP 탈퇴(1월 23일) 공포

※ (대중정책 조정 가능성) 다만, 정권 출범 1개월이 지난 2월 현재 미국 정부가 공식 정책은 물론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대중정책의 조정이 진행중일 가능성 확대

○ 정권 출범후 미국의 대중태도 표명 유보 및 유화시그널 진행 중

- (대중 태도 완화) 취임 20일 만에 시진핑 주석의 취임 축전에 대한 감사 인사와 건설적 관계 희망 메시지의 답신 발송('17.2.8)

- 트럼프,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 걸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상호 방문 정상회담 의사 타진 등의 메시지 전달(‘17.2.10)
- (정책조정 시그널) 미 상무부, 환율조작을 환율조작국 지정이 아닌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하는 방안 검토 보도 나옴(WSJ, ‘17.2.14)
- (대중정책 변화 가능성 보도 출현) 파이낸셜 타임즈(FT), “트럼프의 대중국 입장 주류로 기울어” 평가(‘17.2.14)
 - * ‘하나의 중국’지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입장 완화. 일본에 대해서도 TPP 탈퇴 유지하되 미일 안보협력 지속 확인.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도 과거의 단호한 태도에서 완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트럼프 시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2/14, 사설)
- 다만, 나바로 등 통상 참모들의 그간 주장이나 선거운동시 중국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보아 대중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경우 정권의 정통성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중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응) 자유무역 및 제도(다자·양자 통상협정)에 근거한 원칙적 대응방침을 내세우면서도 미중 경제관계의 호혜적(win-win) 효과를 강조하는 등 예봉 무마 노력도 병행

○ (강력한 개방경제 의지 표명) 시진핑 주석, 트럼프 취임 직전 국제포럼에서 개방 확대와 보호주의 반대를 천명

* “개방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격”, “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시진핑 주석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2017.1.18일))

- 외교부 화춘잉(華春英)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주의 반대와 자유무역 선도 의지를 강조

* 시진핑 주석의 다보스포럼 개막식 연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 이런 형세에서 누가 진심으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지, 누가 보호주의를 실시하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답은 로스 선생(미 트럼프 행정부 상무장관 지명자)과 정반대일 것이다(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2017.1.19))

○ (호혜성 강조) 트럼프 취임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이득이 됨을 강조하여 통상공세의 예봉 무마를 시도

- 상무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중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상세한 자료*를 동원해 경제 교류가 미국경제에 이로움을 강조

* “미중 경제관계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你中有我, 我中有你) 이익의 교차융합구조”, “15년 미국내 260만개 일자리 창출”, “미국 GDP 1.2% 제고”, “미국 물가 1~1.5% 인하” 등(상무부 순지원(孫繼文) 대변인(2017년 1월 19일))

☞ **트럼프 정권 출범 관련 중국정부(상무부) 기자회견**

* 상무부 순지원(孫繼文) 대변인 기자회견담회(2017년 1월 19일)

- (질문) 트럼프 집권후 중미 통상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종합평가) 수교후 30여년간 양국간 경제협력은 無에서 有, 小에서 大로 확대되었으며, 협력기초 공고해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你中有我, 我中有你) 이익의 교차융합구조 형성
 - 중미 경제협력은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서로 상처주는” 관계
- (중국의 입장) 미국의 신정부와 손을 맞잡고 중미 경제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양국 인민에 복지를 가져오기를 바람
- (중미교류의 효과) 중미경제관계의 본질은 호혜공영이며 양국민에 실질적으로 거대한 이익 제공
 - 2015년 중미간 무역·투자는 미국에 260만개의 일자리 창출
 - 미국 GDP의 1.2%에 해당하는 2,160억 달러 공헌
 - 미국의 대중 화물·서비스 수출 2026년 3,690억 달러 → 2050년 5,200억 달러 예상
 -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로 미국의 물가 1~1.5% 인하
 - 2015년 평균소득 5.65만 달러인 미국 일반가정 대중수입으로 850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약(중미무역 전국위원회 공동보고서(옥스포드경제연구원))

○ (외교·안보적 대응 병행) ‘신형대국관계’ *론에 입각하여 ‘핵심 국가이익’ **에는 강경 대응, 기타 분야에는 적극적·포용적 대응

*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인정·평화를 지향하는 강대국간 관계

** “중국 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영토 및 주권 보호, 경제·사회의 지속적 안정 발전”에 관계되는 쟁점(다이빙궈 외교부장,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2009, 7))

- 외교부 화춘잉(華春英) 대변인, 기존의 ‘신형대국관계’에 입각한 양국관계 지속 의지 천명

* “중미간에는 공동이익이 갈등보다 훨씬 크며 협력을 통해 양국과 세계에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음. 중미 양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공동 노력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음. 미국의 신 행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비충돌과 비대항 및 상호 존중·협력 공영의 원칙을 견지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기자회견(2017년 1월 19일))

II. 주요 통상 이슈 점검

1. 환율조작국 지정

□ (미중 환율문제) 중국의 WTO 가입('01년)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늘어나면서 위안화 환율 문제 미중간 뜨거운 쟁점중 하나가 되어왔음

- '03년 이후 수많은 시도를 거쳐 ' 16년 2월 환율조작법안을 공포한데 이어 4월 USTR은 중국과 함께 독일, 일본, 한국, 대만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10월 스위스 추가)하고 위안화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참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법안, 기준, 조치

- (입법경과) 미국 의회는 '03년 이후 30회 이상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을 다루기 위한 입법을 시도해 왔고, 결국 '16년 2월 환율체제에 대한 조사를 규정한 무역 촉진집행법(TFTEA: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제정
 - (지정 기준) 미국과 연간 550억 달러 이상의 무역액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10대 무역파트너) 중에서 3개 기준 해당 국가
 - 1) 대미 무역흑자 규모 200억 달러 초과,
 -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3) 환율개입으로 매입한 외환자산 순매수액 GDP의 2% 초과
 - (조치) 3개가 있음 ;
 - 1)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 2) 미국 상부부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
 - 3) 통상법 301조(1974)을 발동하여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정 위반 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부담 여부를 조사하여 일방적 무역제재를 실시
- * 자료 : 강선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경제정책>,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2016-51) (2016년 11월)

□ (환율조작국 지정)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그 이전부터 트럼프 진영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고 보복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침 천명

- 트럼프 진영 통상참모로 신설 국가무역위원회(NTC) 의장에 지명된 피터 나바로 교수는 저서 <Death by China : Confronting the Dragon>(2011) 등을 통해 중국의 환율 조작을 강력 비판

- 트럼프 역시 선거운동때부터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추진 및 45%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
- 당선 직후 공표한 <무역 200일 행동계획>에서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및 45% 보복관세 지정 방침을 확인
- (취임 후 동향) 당선 이후 중국의 환율조작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공개될 예정
 -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는 트럼프와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의장 지명자등이 강력하게 지적해 온 그냥 넘어가기 힘든 문제

□ (중국의 대응) 환율조작국 지정의 부당성 지적, 위안화 환율결정 시장화, 양국 무역의 상호보완성 강조 등을 통해 미국의 시도에 대응할 전망

- (부당성 지적) 중국은 과거 여러차례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등을 통해 미국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16년 10월부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정식 편입되는 등 위안화 시장화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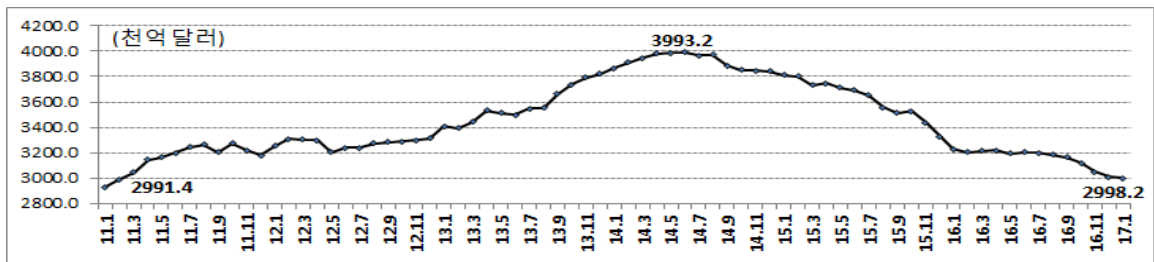
- (환율결정 자유화) '15년 8월 중국이 위안화 결정시스템 시장화 조치를 확대하면서 불안정속에서 위안화 절하세가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도 감소(표 참조)

* '16년 12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105조 달러로 2년 6개월 전 3조 9,900억 달러에 비해 9,795조 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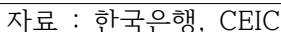
- (상호보완성 강조) 이와 동시에 서비스무역은 미국이 흑자라는 점, 대중수입의 물가안정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점 등을 지속해서 지적

* 트럼프 정권 출범(1월 20일) 전후(1월 19일과 23일) 중국의 외교부와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 교역의 상호보완 효과와 미국경제 기여도를 반복해서 강조

- * '17년 1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5년 9개월만에 3조달러 이하로 진입



- 이후 중국은 위안화 환율결정 시스템 개혁을 계속하고 있음



□ (전망)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3개 중1개(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만 해당되며 나머지 2개 기준 충족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법안을 고쳐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검토〉

구분	검토내용	평가
규정 (법적 근거)	○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미충족 - 첫번째 기준(대미 무역흑자 규모 200억 달러 초과)만 충족 ※ 오히려 한국이 2가지 기준을 충족(무역흑자 규모, 환율개입)시키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실정	○ 지정 불가능 - 기준 조정시 가능 * 한국도 지정 가능성
효과	○ 상호 무역특화(TSI) 수준이 높아* 환율조정 효과 제한 - 대중수출 상위 30개 품목(대중수출의 52.6%) 중 TSI가 ± 0.70 이하인 품목 7개, 대중수입 30개 품목(대중수입의 40.3%) 중 TSI ± 0.7 이하 전무 ==> (의미)위안화 절하가 대중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대중수출 확대에 연결되지도 않음 - 대중 수출품의 무역특화 수준과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보복에 취약 * 대중수출 5대 품목(여객기, 대두, 중형승용차, 집적회로, 수수)이 32.8%를 차지하며, 이중 집적회로(TSI 0.59)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완전 수출특화 상태(TSI 0.97 이상) - 대중수입 5대 품목(핸드폰, 노트북, 전기 단속·조절기, 3륜자전거, 컴퓨터부품)은 대부분 글로벌기업의 중국내 생산제품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효과 제한적 ○ 위안화 절하시 대중 수입단가 상승으로 미국내 물가 상승	○ 효과 불확실 ○ 중국의 보복 가능성 ○ 미국내 물가상승 압력
전례	○ 플라자합의('85)를 통해 엔/달러 환율을 3년간('85~'88년) 절반 수준으로 절하한바 있음 - 그러나 엔 절하후 11년간 일본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유발국 지위를 유지했으며 9년 후에도('97년) 미국 무역적자의 30%이상을 차지한 점에서 환율조정의 무역적자 수정 효과는 확실치 않음	○ 유사사례 있으나 효과 불투명

2.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의미와 트럼프측 비판) 미중 무역의 오랜 현안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측 강력한 비판과 보복의사 천명

○ (무역구제)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피해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통칭하며 3가지 유형*을 포괄

* △반덤핑(Anti-dumping) 수출국 기업의 덤핑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제 대상이 수출국의 기업, △상계관세(Counter-veiling Duties) 수출국 정부의 수출보조에 따른 수입국의 피해에 대한 보복조치(보복관세)로 상대국 기업이 아닌 정부를 겨냥, △세이프가드(Safe Guard) 수입확대에 따른 임시 보호조치로 상대국의 규정위반과 관계 없이 실시

- (반덤핑 및 상계관세) 2016년 10월 말 현재 미국은 총 38건*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17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도 동시에 부과

* 화학 및 의약품 6건, 철강제품 16건,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4건, 기타 공산품 9건 등

- (세이프가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한바 있음

○ (트럼프의 비판) 반덤핑은 물론 상계관세 조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필요시 특별세이프가드* 실시 방침 공언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실시 방침을 공언

□ (중국의 대응) 미국에 대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등을 포함하여 적극 대응하면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강력 요구할 전망

* MES(Market Economy Status)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경우 덤핑 여부 판정시 중국내 시장가격을 참조하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제수준이 비슷한 제3국 시장가격을 참조.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반덤핑 판정시 그만큼 불리해짐.

○ 실제로 '09년 미중 통상분쟁 당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는 물론 상계관세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맞선 바 있음

* '09년 미국의 대중국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자동차, 닭고기, 평판압연강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대응한바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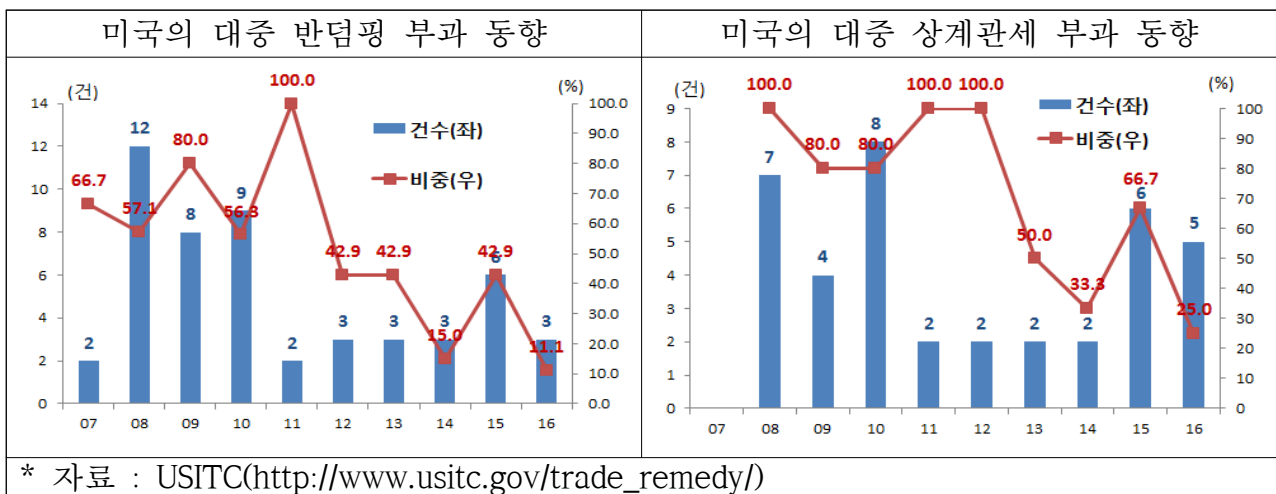
□ (전망) 미국의 무역구제 공세 강화되겠으나 중국도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대중수입 제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무역구제 조치는 사안의 성격상 품목별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응 역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정국가의 무역 전체에 대해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적음
- 따라서 대중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혹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기 어렵고 중국도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보유
-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은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인정을 요구하는 중국과 미국간 마찰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상황(2017년 1월 현재)>

반덤핑		상계관세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02	35.2	38	44.7

* 자료 : USITC(http://www.usitc.gov/trade_remedy/)



2) 2009년 당시의 미중간 무역구제를 둘러싼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정환우, <미중 통상관계 동향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년 4월) 참조

3. 불공정 행위

□ 중국기업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 역시 미국 공세의 표적 가능성

- (불법행위 제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 경영비밀 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할 것임을 천명

* 세이프가드(SG, 201조), 불공정 무역관행 보복(301조), 수입규제(232조)

- 신임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지명자 피터 나바로는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동의했음에도 중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매년 WTO에 통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지재권 침해 제재) USTR은 ‘Special 301조’에 의거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왔음

- 지재권 보호조치 개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 301’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 또는 쿼터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3년의 경우 337조³⁾에 의거한 조사개시 건수는 42건으로 2012년에 비해 2건이 늘어난 것이고, 그중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개시된 것은 전년보다 1건 늘어난 19건으로 미국의 337조 조사 대상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45%를 차지⁴⁾

□ (전망) 트럼프 진영의 강력한 공격 대상이었고, 중국은 수용 태도를 보이겠으나 실제 공세 효과는 사안별로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3)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토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수출업체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제소에 따른 수입규제보다 큰 피해를 줌.

4) 商務部, <國別貿易投資環境報告2014> (<http://trb.mofcom.gov.cn/article/d/cw/>), 90쪽

- 미국의 공세 증가하고 사안의 성격상 중국은 수용 태도를 보이겠으나 사안별 제재 효과 외에 보복관세 부과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실시하기는 어려움
- 중국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하여 수용적 태도를 보이겠으나 의미 있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
- 결국 미국의 공세 강력해 지겠으나 보복관세 보다는 사안별 적발과 보복 방식을 펼 것으로 전망

4. 경제협력

□ (경제협력)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사업으로 양국 상생 분야이나 통상 및 외교안보 갈등 상황에 따라 영향 받을 전망

* 미중간에는 다양한 협력 의제가 미중전략경제대화 등을 통해 논의·점검되고 있음. 예를 들어 '16년 6월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협력 관련 20개 항목, 환경보호 관련 11개 항목, 해양협력 7개, 교통협력 5개, 과학기술·위생·농업 13개, 지방협력 3개, 양자간 에너지·환경·과학기술 대화 11개를 진행하기로 합의(중국 외교부, 상세내용 [참고6] 참조)

- (미국) 중국과 협력 여지가 크나 신정부 이후 강약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
 - 미중간 협력 대상에는 에너지, 환경보호, 해양, 과학기술, 위생, 농업 등 미국에 이익이 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 미중 갈등으로 협력이 부진할 경우 협력 촉진 요구가 늘어날 전망
- (중국) 적극적 태도를 보여 왔으나 미국측 태도에 따라 대응 전망
 - 미중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등을 위해 외국과의 협력 및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음
- (전망) 미국 신정부 초기 미중 갈등고조 국면에서 부진하겠으나 양국의 필요에 따라 점차 증가국면으로 전환 예상

5. 통상협상

- (통상협상)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통상협상은 양국간 협력의 촉진요인으로 작용
 - (미중 투자보장협정(BIT)) 양국의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유화 확대를 목적으로 '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최대 통상협정으로 이 협상을 통한 투자개방 확대가 중국의 투자자유화 수준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의 투자자유화 협상이 진행중이며 네가티브리스트(negative list) 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 미국은 폭넓은 자유화(네가티브리스트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좁은 범위의 네가티브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음
 - (기타 협상) '16년 6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논의된 협력리스트들 역시 양국간 통상협상 형식을 띠고 있으며, 양국의 통상갈등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고 있음
 - 미국 이익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성향에 따라 미국이 대중 통상협상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통상협상을 경시할 가능성이 큼

〈트럼프 집권 후 미중간 통상 현안 및 전망 요약〉

분야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전망
정책기조	○ 미국 우선주의 - 보호주의	○ ‘신형대국관계’ *입각 대응 * 대립·갈등이 아닌 상호인정·평화 지향 강대국간 관계 - ‘中중심 통상네트워크’ 추진	○ 갈등 후 적정관계 모색
환 율	○ ‘환율조작국’ 지정 - 지정시 징벌적 관세, 美 세이프가드 발동 등 추진	○ 부당성 지적, 위안화 시장화 지속 추진 * 환율시장화개혁 추진, 위안화 절하 방어용 외환보유액 소진, 위안화 SDR편입 등	○ 갈등(시도) ↔ 대응 후 적정 방안 모색
무역구제	○ 제소 확대 - 반덤핑(AD), 상계관세 (CVD), 세이프가드(SG)	○ 무역구제 조치 대응 강화	○ 미국 제소 확대 → 중국 대응 확대 - 실제 효과 제한적
	○ ‘시장경제지위’ (MES) 부여 거부	○ MES 부여 요구	
불공정·불법 행위	○ 조사 및 제재 강화 - 정보 탈취, 지적권 침해 조사 및 대응 강화	○ 사안별 대응	○ 미국의 제재 강화
경제협력	○ 협력강화 및 사안별 대응 - 에너지源,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산업표준, 기업협력등	○ 협력 강화 및 사안별 대응	○ 협력 필요성/공간 상존
통상협정	○ 미중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시 대중요구 강화	○ 신중 태도	○ 지연 가능성
	○ 양국관련 통상협상에 대체로 관망 태도 - RCEP**, FTAAP***	○ 지역 통상협정 적극 추진 - RCEP, FTAAP 등	○ 美 통상협정 노력 축소 ○ 中 주도 강화 - 협상 진전은 불확실
기타 외교·안보	○ 사안별로 제기 - 남중국해, 대만문제, 사드배치	○ 대체로 강력 대응	○ 美 사안별 압박 활용, ○ 中 반발

* 투자자유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2008년 협상개시, 중국의 개방폭(네거티브리스트 범위) 문제로 지연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태지역 16개국(아세안 10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미국 제외)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정식 협상 개시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AP) : 2006년 중국의 제안으로 논의 시작된 TPP와 RCEP를포괄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무역협정 논의.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 일본 등은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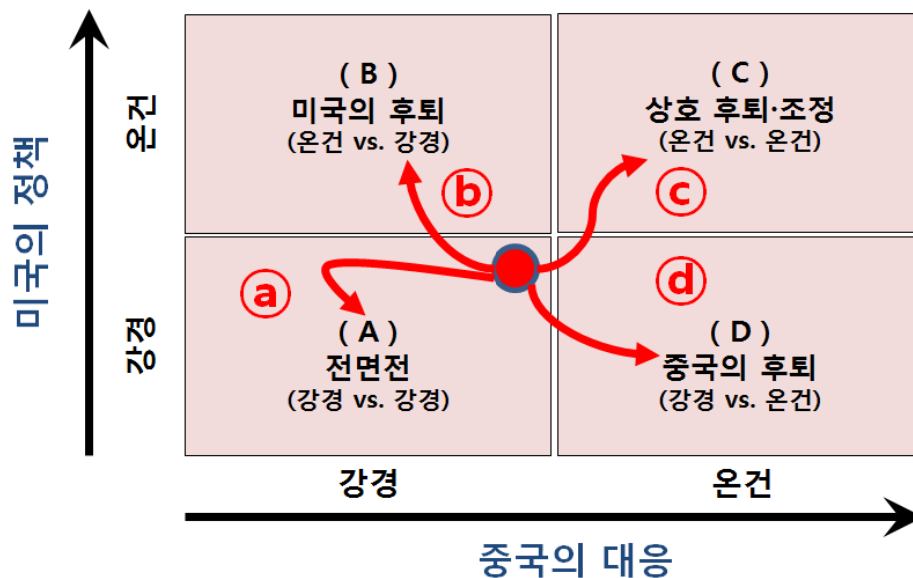
자료 : 자체 작성

Ⅲ. 미중 통상관계 시나리오

1. 4개 시나리오

□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대응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가능

<트럼프 집권후 중-미 통상관계 시나리오>



시나리오	1단계* (취임 첫해('17년)) * '무역 200일 액션플랜'(~'17.7) 포함	2단계* ('18년 ~)	가능성
㉠전면전 지속 (A) → (A)	美 강공과 中 강력 대응	○ 모든 쟁점 강경 대립 지속 - 환율, 무역구제, 불법행위 ○ 협력 및 협상 부진 - 경제협력, BIT·FTAAP ○ 외교안보 사안 갈등 지속	적음
㉢전면전→미국 후퇴 (A) → (B)	中 강경 대응, 美 강공	○ 美 환율, 무역구제 공세 약화 ○ 美, 경제협력·협력 수용 ○ 외교안보 갈등 완화 ○ 中 강력 대응 지속	다소 적음
㉡전면전→상호 후퇴조정 (A) → (C)	양측 강공	○ 美 환율, 무역구제 공세 약화 ○ 美, 경제협력·협력 수용 ○ 외교안보 갈등 완화 ○ 中 온건 대응 전환	큼
㉣전면전→중국 후퇴 (A) → (D)	양측 강공	○ 미 강공 지속 ○ 中 온건 대응 전환	적음

* (단계구분 설명) 1) 미국의 '무역 200일 액션플랜' (약 6개월)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중국의 정치일정(11월 19차 당대회 및 연말 경제공작회의를 감안해 1단계를 1년으로 설정, 2)양국 정책 패턴 형성 이후임을 감안해 2단계는 '18년 이후 시기 불확정

2. 시나리오별 내용

- ① (제1 시나리오㉠) 전면적 지속으로 미국의 강공과 중국의 강력 대응 지속 상태로 상호의존이 강하고 미국 능력의 한계로 가능성은 적음
 - (주요 쟁점) 미 신정부 초기의 전분야* 공세 및 비협조 지속
 - * 환율공방, 무역구제 공세, 불공정 행위 적발 보복, 경제협력 약화, 통상협력 지원, 외교·안보 갈등 지속
- ② (제2 시나리오㉡) 중국의 강경 대응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강공에서 온건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다소 적음
 - 미국의 공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크나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가능성이 크지 않음
 - *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 및 대외 통상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있음. '핵심 국가이익' 저촉되지 않는 한 포용적 태도 유지한다는 방침
 - (주요 쟁점) 초기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공세를 보인뒤 환율 공세 완화하고 경제협력 및 통상협정에서 협력적 태도 전환하되 중국의 강력한 대응 지속
- ③ (제3 시나리오㉢) 초기에 양국 모두 공세를 보인뒤 양국 모두 유화적 태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로 가능성 큼
 - 미국의 신정권이 실용적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대외개방 및 포용적 대외경제전략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중간 상호의존도가 높아 가능성이 큼
 - (주요 쟁점) 모든 분야에서 공세 대립을 벌이다가 점차 온건한 정책으로 전환
- ④ (제4 시나리오㉣) 양측이 강공 태도를 보이다가 미국의 강공이 지속되고 중국이 후퇴하는 경우로 미국이 강공을 유지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 중국이 후퇴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주요 쟁점) 미국이 모든 분야 공세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환율과 무역구제 조치를 수용하고 불공정 행위 수정 및 경제협력, 통상협정 등에 전향적 태도를 보임

IV.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과 대응시사점

1. 미중관계 전망과 대응

□ (시나리오 전망) 4개 시나리오 검토 결과 ㉠시나리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전망 내용) 초기(트럼프 정권 출범후 대략 6개월 시점까지) 강력한 통상공세를 주고 받다가 온건 및 타협으로 안정화

- (환율 공세) 중국의 환율조작 비난 및 환율조작국 지정 시도하겠으나 지정 취소 혹은 수정 및 타협으로 전환하고 중국 역시 강온 대응으로 맞서면서 적정 타협안 모색
- (무역구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거부하는 가운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확대가능성 큼. 그러나 전례로 보아 중국 역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많으며 건별(품목별)로 이루어지는 조치의 특성상 중국에 대한 전면적 무역보복 조치는 불가능
- (불공정·불법행위) 중국이 이미 미국의 최대 보복대상이자 선거 캠페인 기간 트럼프측의 단골 지적사항으로서 대중 보복조치 확대 가능성 큼. 단 사안의 성격상 전면적 대중보복 조치는 불가능. 중국은 사안별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진출 미국 제품/업체에 대한 공세* 확대 가능성

* '16년 2월 현재 중국정부는 반독점법 세부 규정에 대한 제정·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쉐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으로 역대 최대액인 60억 위안(약 1조 100억원)을 부과받은바 있음

- (경제협력) 트럼프 집권 초반 미중 통상갈등 격화에 따라 경제협력 상당수 중지 혹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필요성에 따른 재개 확대 가능성
- (통상협정) 통상갈등 격화에 따라 미중 투자보장협정 등 일시 중지 내지 연기되겠으나 점차 정상화될 가능성

- (전망 근거) 3번째 시나리오(전면전→ 상호 후퇴·조정) 가능성이 큰 이유로 3가지 즉 △리더쉽, △절차 및 기술적 문제, △실제 효과의 한계 및 부작용을 들 수 있음
 - (리더쉽)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및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을 선거에 활용해 당선됐으므로 초기 대중국 강경정책은 피할 수 없으나 실용적인 협상가 스타일로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가 용이
 - 통상팀 역시 정책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피터 나바로 NTC 위원장), 실용주의자(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 실무 법률가(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지명자) 등으로 저서등에서 제기했던 극단적 반중정책(환율조작국 지정, 45% 보복관세 부과 등)을 지속하기에는 한계
 - (절차 및 기술적 문제)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하고, 중국을 지정할 경우 한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를 함께 지정해야 하므로 전선이 확대돼 미국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 무역구제·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미 상당수준 진행돼 왔고 사건 및 품목별로 진행되는 사안의 특성상 강력한 제재효과는 거두기 어려움
 - (실효성 문제) 중국의 보복, 미국내 인플레이 압력, 환율조정에 따른 무역적자 감소효과 미미 등의 문제로 인해 강력하고 오랜 보복조치가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 중국과 미국의 상호 수출입 품목이 높은 수준의 무역특화(TSD)*를 이루고 있어 환율변동시 상호 수출경쟁력에 변화가 생기기 보다는 수입물가만 높이는 결과 초래
 - * 미국의 대중수출 상위 30개 품목(대중수출의 52.4%)의 무역특화가 ± 0.8 이상인 품목이 22개에 이르고, 대중수입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무역특화지수가 ± 0.8 이상인 품목이 2개에 달하는 등 고도의 무역특화 지수를 보이고 있음. 이는 양국의 환율 변동을 통한 단가경쟁력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 압력만 커짐을 의미('15년 기준)(상세내용 [참고6] 참조)

- 전례로 보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급증시 중국의 보복조치 및 강력한 소송 등이 예상
- 대표적인 인위적 환율 조정 사례인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의 대일본 및 대독일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음.(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가능성)

- 미중 통상 갈등이 우리의 수출(대중, 대미)에 미칠 충격은 ㉠ → ㉡ → ㉢ 및 ㉣ 순일 것으로 예상

<미중 통상관계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

시나리오	내 용	가능성	영 향
㉠전면전 지속 (A) → (A)	美 강공과 中 강력 대응 지속	적음	○ (수출) 중국의 대미수출 둔화로 우리의 대중 원부자재 수출 부진 - 한중 경합품목의 한국→미국수출 유리 - 대한민국·대중국 동시 제재시 수출환경 심각한 악화 ○ (통상환경) 각종 제소 및 협력·협상 위축시 한국의 기회 확대 가능
㉡전면전→미국 후퇴 (A) → (B)	中 강경 대응, 美 강공→ 후퇴 전환	다소 적음	○ 초기 수개월간 불안정 후 원상 복귀
㉢전면전→상호 후퇴조정 (A) → (C)	양측 강공→ 양측 후퇴· 조정 전환	큼	○ 초기의 전분야 위축 및 충격에서 시간 경과후 상황 완화·정상화 *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뒤에서 상세 논의
㉣전면전→중국 후퇴 (A) → (D)	양측 강공 → 中 후퇴 전환	적음	○ (수출) 중국의 대미수출 둔화로 우리의 대중 원부자재 수출 부진 - 한중 경합품목의 한국→미국수출 유리 - 대한민국·대중국 동시 제재시 수출환경 심각한 악화 ○ (통상환경) 각종 제소 및 협력·협상 위축시 한국의 기회 확대 가능

* 자료 : 자체 작성

2. 사안별 영향과 대응(3번째 시나리오 기준)

□ 전반적 리스크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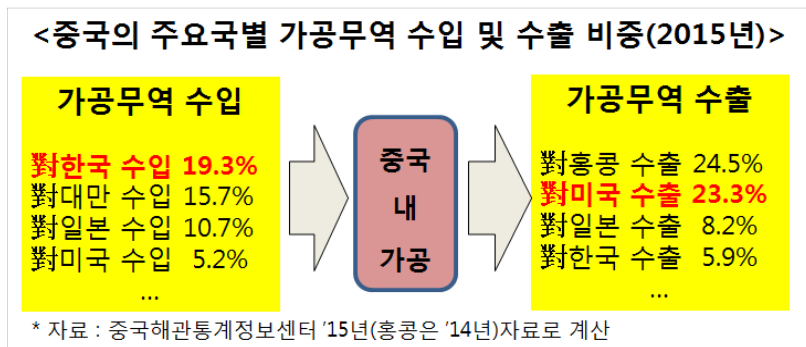
- 한-중-미간 국제분업구조상 미중 통상갈등 격화는 우리 수출 환경 불안정성을 높이고 우리의 대중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으나 일부 기회 가능성도 있음
- (리스크) 미중 통상갈등은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주고 우리의 수출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여 불리하게 작용
 - 미국이 중국에 높은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의 대중수출의 7~10%를 차지하는 미국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됨(표 참조)
 - * '16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계산시 123.9억 달러에 이름
산식 : 대세계 수출액(4,954억×2.5%=123.9억)
 - 또 미국의 대중 규제시 한국에 대해서도 규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커져 우리의 대미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제도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큼
- (기회) 다른 한편,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 강화시 한국의 대미 무역 기회 커질 수 있음
 -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수출기회 커지므로 면밀한 파악과 활용 방안 모색이 중요
 -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혹은 미국산 제품의 대중 우회수출에 유리
 - * 선거유세시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으나 NAFTA 재협상이나 대중 무역 규제 언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확실하지 않으며, 재협상 하더라도 한미 FTA 자체는 중국기업의 우회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

☞ [참고] 대중수출과 미중 무역관계

□ 한국의 대중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중 대미국 수출의 비중은 4.5%로 집계되나 실제로는 7~10%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계산식)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대미국 수출의 비중=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비중×대미국 가공무역수출비중/100 (23.3×19.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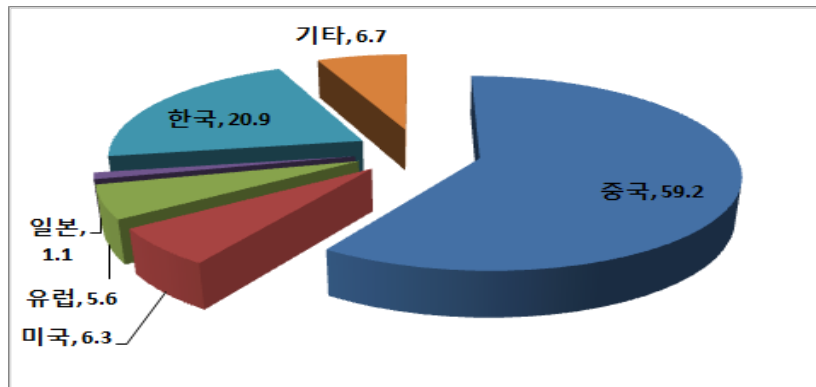
- 단, 중국의 대홍콩 수출의 절반 가량이 미국向 우회수출(약 2.5%)이고, 일반무역 형태의 대미국 수출품도 적지 않음을 고려할때 실제 비중은 7~10%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한편, KOTRA 설문조사 결과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대한국 수입 원부자재가 중국내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 (조사대상) 중국진출 163개 업체;
- (조사기간) '16년 11월 30일~12월10일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대한국 수입 → 대중수출품 비중>



☞ (참고)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우리의 대중수출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5%로 나타남(한국은행,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와 미국의 보호주의가 우리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2016.12.7))

- 단, 이 경우 중국의 홍콩을 통한 대미수출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감안할때, 실제로 우리 대중수출품 가운데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약 10% 전후)으로 추정

□ 사안별 발생 가능 이슈 및 대응방안

-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도 지정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이 빠지고 중국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대중수출의 7~10% 가량이 타격을 받게 되며, 한중간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품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무역구제) 반덤핑 제소의 경우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우려
 - 특히 반덤핑 조치의 경우 중국내 제조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되므로 사안별로 파악 및 대응 필요
- (경제협력) 미중간 경제협력 분야 협상과 사업 진행은 당분간 부진할 가능성이 많으나 서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조만간 진전 가능성도 있음
 - 미중간 협력 부진은 한중 FTA를 통해 다양한 협력통로를 마련한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음
 - 과거 미중간에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간 협력 가능 분야 발굴 필요
- (통상협정) 미국의 통상협상 정책이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미중간 통상 협상도 부진해 질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우리의 기회와 환경이 바뀔 수 있음
 - TPP가 폐기되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RCEP 협상이 중국 주도하에 진행되므로 한국이 적극적 역할 발휘가 유리

- 미중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겠으나 이와 별도로 한중 FTA 투자·서비스 후속협상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의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를 더욱 끌어낼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아태지역 FTA(FTAAP)는 조기 진전 여부를 떠나 우리가 아태지역 통상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유리
- (기타 외교·안보 사안) 우리와 직접 관계 없는 남중국해, 대만문제 대해서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개입을 자제하고 국제법적 해결 원칙 제시가 리스크 감소에 유리
-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영토문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으로 중국의 양보가능성이 없음
-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정권교체기로 미중 통상갈등의 수준과 범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한국에 차기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배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융통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 [참고1]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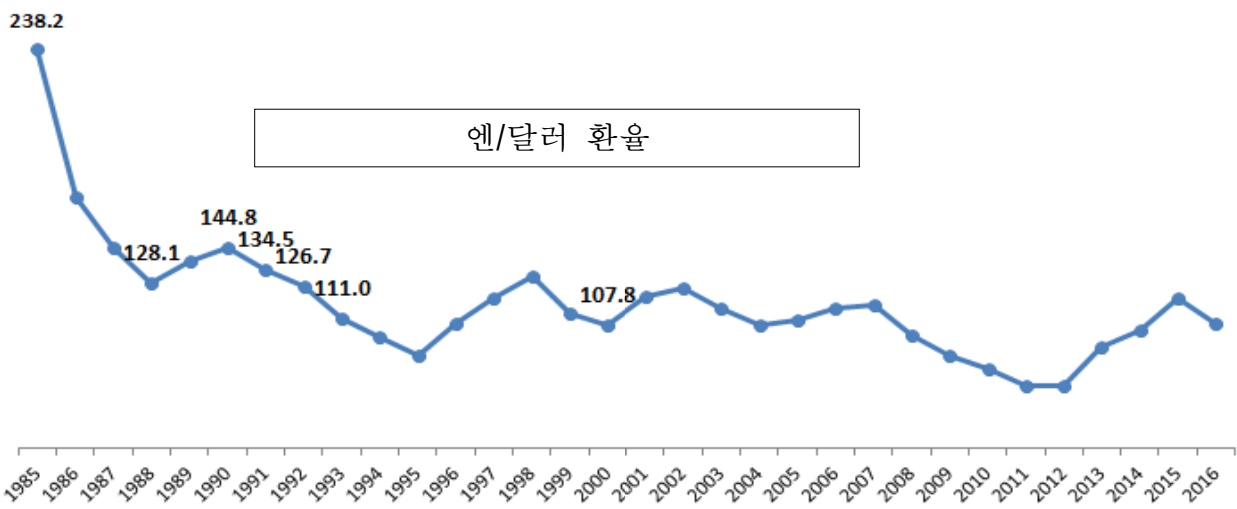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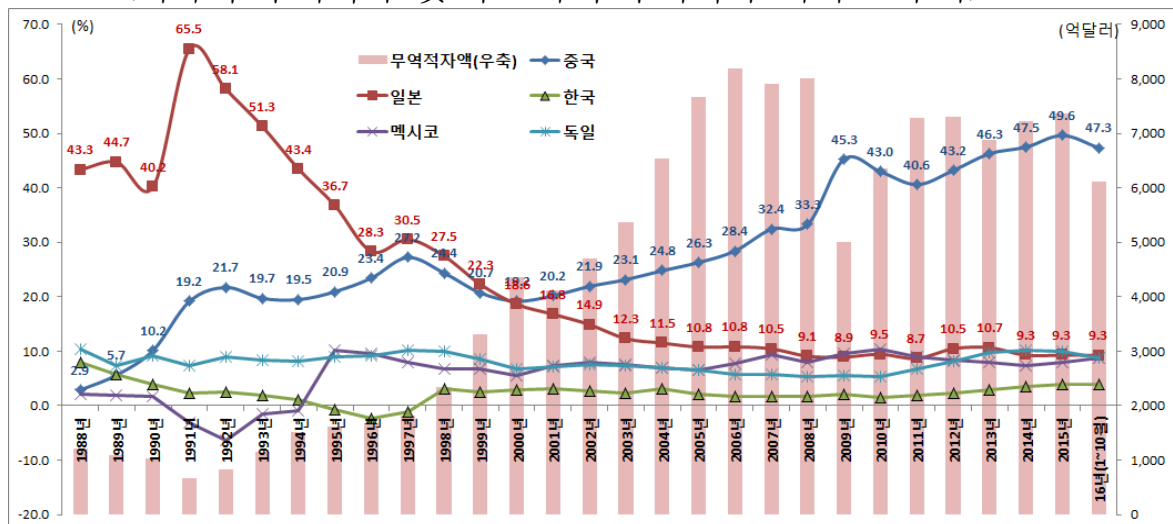
-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은 엔/달러 환율을 1985년의 238.2엔에서 1988년 128.1엔으로 53.8% 끌어 내렸음

* '85.9월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G5(프, 독, 일, 미, 영)의 재무장관이 모여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 그후 3년간 엔화 가치 절반 가량 하락

- 그러나 엔화 절상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완화시키지는 못함
 - 대일 무역적자는 엔화 절상 9년 후('94년)까지 40%를 차지
 -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엔화 절상후 줄어들기는 했으나 주원인은 대멕시코 흑자였음
 - 무역적자는 오히려 주요 통상협정 발효후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남

* NAFTA 발효('94년) 후 대멕시코 적자 급증, 중국의 WTO 가입('01년) 이후 대중국 적자 급증, 한미 FTA 발효(10년) 이후 대한국 적자 증가 등

〈미국의 무역적자 및 주요국의 무역적자 기여도 추이〉



☞ **[참고2] 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 의장 대표저작 주요 내용**

〈Death by China :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2011)

* 서정아 역,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지식갤러리, 2012)

- 중국의 경제적 본질 : 중국공산당식의 변칙적인 ‘국가자본주의’가 세계의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원칙을 산산조각으로 파괴
 - 국가자본주의의 대리인이자 중국정부의 후원을 받는 ‘국가대표 기업’이 중상주의와 보호주의를 결합한 정책을 무기 삼아 전세계 산업계의 일자리를 잠식(12쪽)
- 중국의 ‘일자리 파괴 8대 무기’
 - 불법 수출보조금 지급
 - 환율 조작
 - 지적 재산 위조, 저작권 침해, 절도 행위
 - 환경 파괴
 - 취약한 근로자 보건 안전 기준
 -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불법 관세, 쿼터 등)
 - 약탈적인 가격 정책과 덤핑
 - ‘보호주의 만리장성’
- (대응방안) ‘龍의 世紀 생존전략’
 - 중국산 저질 제품 피하기 : 염가제품 우선태도 바꾸기, 제품 표시 확인, 인터넷쇼핑의 경우 원산지 표시규정의 허점 보완,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요구, 중국산 이외 제품 선호한다는 점 유통업체에 알리기, 중국산 유명 브랜드제품 조심하기
 - 일자리 파괴 무기 해체시키기 : 미국 자유·공정무역 법안 통과, 글로벌 협력 및 공조 강화, 환율개혁 유도 위한 비밀특사 파견, 중국행 오프쇼어링의 위험성 인식, 중국의 무역 개혁 요구, 기술이전 요구 및 R&D 침탈 금지, 미국산 콘텐츠산업 보호 강화, 중국기업의 M&A 금지, 두뇌와 근성 갖춘 대통령 필요
 - 스파이와 사이버 전쟁에 대처 : 대중 방첩활동 확대, 중국 스파이 처벌 강화, 중국인 방문객 및 비자 조사 강화, 對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인터넷용 ‘차이나 킬 스위치’ 개발, 스파이 행위와 절도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 강화
 - 군사적 위협에 대응 : 공업력으로 중국 압도는 불가능, 군비경쟁과 ‘레이전식 덫’ 피할 것, 미국의 취약성 있는 그대로 평가, 중국의 일자리 파괴 무기 해체
 - 중국의 식민주의에 대항 : 중국의 UN 거부권 남용 중지, 대중국 대응에 외교역량 집중, 고등학교 제1외국어 수업 중국어로 대체
 - 자국민 억압 중지 : 인권 요구 강화, 대중투자 철회, 인터넷 검열도구의 수출을 제한
 - 중국의 우주 도전에 대응 : 미국 민간산업의 우위를 이용해 비용 절감,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강화

☞ **[참고3] Peter Navarro 국무무역위원회 의장 대표저작 주요 내용**

〈Crouching Tiger :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2015)

- (중국 관련 분쟁발생 가능 이슈들) △대만, △북핵, △남중국해, △중-베트남 분쟁, △중-인도 분쟁, △중국판 ‘먼로 독트린’, △중국의 대주변국 무력 도발, △중국내 과격파들의 도발, △중-러 연대 강화
 - (미중 분쟁시 승패의 결정 요인) △물량공세의 유효성, △아시아지역 미국 주둔지의 표적화, △해-공군 군사력, △제해권, △재래식 전쟁의 결과
 - 중국의 부상 관련 기존 논의 평가
 - 군축이 수반된 신고립주의 : 미국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미국의 입지 약화로 이어져 아태지역 평화에 위협
 - 중국의 글로벌 경제 개입(economic engagement) 촉진 : 중국의 영향력 확대될 뿐이며 중국의 민주화 기대는 순진한 발상
 -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 상호의존 국가간 전쟁 발발 사례 있음(1차대전). 특히 필수 자원을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가능성 높아짐
 - 중국과의 평화협상 : 군사전략을 공개하려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전략적으로 이용
 - 중국과의 대타협(Grand Bargain) : 미국이 대만 보호, 남중국해 권리 포기하고 중국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 인정한다는 대타협. 이는 중국이 대만문제를 최우선시하고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
 - 정책 제언
 - 미국이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종합국력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강화가 중요
 - 강력한 국가 위한 경제력 강화 : 특히 경제력 약화와 대중국 의존 경계해야 함
 - 경제력 강화 위한 해법 :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 법인세율 인하, 지재권 및 기밀 침해에 강력 대응 zero tolerance policy 필요, 교육개혁
 - 군사력 강화 통한 평화유지 : 물량공세에서 중국이 유리 질적 방어전략 필요
 - 동맹국과의 외교역량 강화 : 단순 아시아 중시로는 불충분하므로 군사력 유지 및 적극적 지역 문제 참여로 동맹국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함
 - 내부의 적 경제 : 내부적 의견 일치, 경제적 분열 및 정치적 분열 조심, 대중매체 및 학계·교육계 통한 침투 대비
- ==> 종합 결론 : 중국이 세계 장악을 위해 암약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 주도의 미래의 위협성을 항상 숙지하면서 대응태세 갖추어야 함

[참고4] 미중 양국의 상호 수출특화지수(TSI)

<미국 대중수출 품목별 무역특화지수(상위 30개 품목)>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수출액	수출 비중	수입액	수지	무역 특화지수 (TSI)
		총계	116,186.0	100.0	481,881.0	-365,695.0	-0.61
1	880000	Civilian Aircraft, Engines	15,439.0	13.29	0.0	15,439.0	1.00
2	120190	Soybeans, ...	10,529.0	9.06	36.0	10,493.0	0.99
3	870323	Passenger motor spark... 1,500~3,000 cc	6,549.0	5.64	98.0	6,451.0	0.97
4	85423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3,474.0	2.99	902.0	2,572.0	0.59
5	100790	Grain Sorghum	2,115.0	1.82	0.0	2,115.0	1.00
6	870324	Passenger motor spark, >3,000 cc	2,043.0	1.76	4.0	2,039.0	1.00
7	740400	Copper waste and scrap	1,684.0	1.45	3.0	1,681.0	1.00
8	230330	Brewing/distilling dregs and waste	1,582.0	1.36	4.0	1,578.0	0.99
9	848620	Machines for semiconductor...	1,432.0	1.23	69.0	1,363.0	0.91
10	851712	Telephones ...	1,317.0	1.13	40,400.0	-39,083.0	-0.94
11	760200	Aluminum waste and scrap	1,307.0	1.12	0.0	1,307.0	1.00
12	470710	Waste and scrap of paper...	1,077.0	0.93	0.0	1,077.0	1.00
13	410150	Whole hides and skins...	917.0	0.79	0.0	917.0	1.00
14	851762	Machines for reception, conversion ...	901.0	0.78	16,810.0	-15,909.0	-0.90
15	271112	Propane, liquefied	898.0	0.77	0.0	898.0	1.00
16	520100	Cotton	864.0	0.74	0.0	864.0	1.00
17	470321	Chemical woodpulp...	858.0	0.74	0.0	858.0	1.00
18	300490	Medicaments, measured doses...	823.0	0.71	236.0	587.0	0.55
19	854239	Electric integrated circuits	737.0	0.63	554.0	183.0	0.14
20	870899	Parts/accessories motor vehicles	719.0	0.62	1,931.0	-1,212.0	-0.46
21	988000	non-canadian low value export shipments...	677.0	0.58	0.0	677.0	1.00
22	300210	Antisera and other blood fractions	632.0	0.54	69.0	563.0	0.80
23	271012	Light Oils And Preparations...	609.0	0.52	11.0	598.0	0.96
24	854232	Memories	594.0	0.51	383.0	211.0	0.22
25	901890	Instruments medical, surgical...	586.0	0.5	512.0	74.0	0.07
26	847330	Parts/accessorie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529.0	0.46	10,811.0	-10,282.0	-0.91
27	440320	Coniferous wood in rough,...	526.0	0.45	0.0	526.0	1.00
28	848180	Taps, cocks, valves ...	492.0	0.42	2,162.0	-1,670.0	-0.63
29	901839	Medical etc. needles nesoi...	469.0	0.4	187.0	282.0	0.43
30	440791	Oak wood, ...	457.0	0.39	2.0	455.0	0.99
		소 계	60,836.0	52.36	75,184.0	-14,348.0	

<미국 대중수입 품목별 무역특화지수(상위 30개 품목)>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수출액	수입액	수입 비중	수지	무역 특화지수 (TSI)
		총계	116,186.0	481,881.0	100.0	-365,695.0	-0.61
1	851712	Telephones ...	1,317.0	40,400.0	8.38	-39,083.0	-0.94
2	847130	Portable digital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416.0	36,573.0	7.59	-36,157.0	-0.98
3	851762	Machines reception, conversion...	901.0	16,810.0	3.49	-15,909.0	-0.90
4	950300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15.0	11,538.0	2.39	-11,523.0	-1.00
5	847330	Parts/accessorie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529.0	10,811.0	2.24	-10,282.0	-0.91
6	850440	Electrical static converters	262.0	4,699.0	0.98	-4,437.0	-0.89
7	950450	Video Game Consoles...	10.0	4,690.0	0.97	-4,680.0	-1.00
8	852872	Other, colour	13.0	4,362.0	0.91	-4,349.0	-0.99
9	844399	Other	110.0	3,548.0	0.74	-3,438.0	-0.94
10	640399	Footwear, ...	19.0	3,528.0	0.73	-3,509.0	-0.99
11	640299	Footwear, ...	1.0	3,367.0	0.7	-3,366.0	-1.00
12	940161	Seats with wooden frames,...	9.0	3,356.0	0.7	-3,347.0	-0.99
13	847150	Digital processing units...	419.0	3,188.0	0.66	-2,769.0	-0.77
14	420292	Container bags, boxes, cases...	5.0	3,160.0	0.66	-3,155.0	-1.00
15	847170	Storage units	182.0	3,147.0	0.65	-2,965.0	-0.89
16	940320	Metal furniture, nesoi	20.0	3,112.0	0.65	-3,092.0	-0.99
17	85437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141.0	2,944.0	0.61	-2,803.0	-0.91
18	611020	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	2.0	2,874.0	0.6	-2,872.0	-1.00
19	640419	Footwear,...	1.0	2,869.0	0.6	-2,868.0	-1.00
20	844331	Machines two or more functions of printing, copying...	52.0	2,829.0	0.59	-2,777.0	-0.96
21	640391	Footwear,...	2.0	2,814.0	0.58	-2,812.0	-1.00
22	847180	Othe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151.0	2,787.0	0.58	-2,636.0	-0.90
23	852351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s...	79.0	2,719.0	0.56	-2,640.0	-0.94
24	940360	Wooden furniture, nesoi	60.0	2,672.0	0.55	-2,612.0	-0.96
25	940540	Electric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esoi	39.0	2,621.0	0.54	-2,582.0	-0.97
26	630790	Made-up textile articles, nesoi	11.0	2,612.0	0.54	-2,601.0	-0.99
27	854442	Electrical conductors not exceeding 1000 v	78.0	2,593.0	0.54	-2,515.0	-0.94
28	999995	Estimate items under \$251 for jan.-dec. ...	0.0	2,550.0	0.53	-2,550.0	-1.00
29	852859	Other	57.0	2,423.0	0.5	-2,366.0	-0.95
30	392690	Articles of plastics, nesoi	274.0	2,394.0	0.5	-2,120.0	-0.79
		소 계	5,175.0	193,990.0	40.3	-188,815.0	

[참고5] 제8차 미중전략경제대화(S&ED, '16.7.6~7일)) 성과 공동설명자료

분야	내 용
경제 정책 협력	○ 환율체제 합의 재확인. 중국 환율시장화 개혁 지속 약속 ○ 양국의 거시경제정책 소개 및 의견 교환 ○ 상호 주요 경제정책 설명 및 논의 - (중국) GDP산정법 공개, 월별 서비스활동지수 공개, 분기별 재정통계 개선 등; - (미국) G20의 리스크식별을 포함한 자본유동 점검 시도 지지 ○ 미국측은 중국의 국제은행업 통계 수치 국제청산은행 제공 환영 및 중국측의 금융 감독 투명성 제고 인정
무역 · 투자 개방	○ 일부 업종의 과잉생산 조절, 배출가스 제한 공동노력 인정 - 특히 철강생산 제한 및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논의 ○ 양자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지속 ○ 상업용 고기술제품의 대중수출 및 중미 전략무역공작팀 논의 ○ 상업 분야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안전협력 확대 ○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심사절차 개선 약속 ○ 중국산 가금육 대미수출을 위한 국내법률절차 조속 마련 합의 ○ 농업 과학기술연구분야협력 검토 및 농업기술협력 진행 ○ 인프라 개발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 - 정부-민간협력프로젝트(PPP), 국내외 공동 인프라 투자 포함 - 최적 인프라투자 모델 검토 및 가능 항목과 상업협력 모델 발굴 ○ 미국은 '15년 26회 중미무역연합위원회의 특별 301조 보고 및 악명시장 보고 관련 양허 갱신 ○ 감독관리 조치의 제정·공포시 투명성·예측성·시장참여의 중요성 인정 ○ 중 공업정보화부-미 상무부간 선진제조업 육성계획 의견 교환 - “미국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중국제조 2025” ○ 중국, 기업소유제 및 거버넌스 정보 투명성 제고 수용 ○ 양자 항공협력 회의 진행, 5개분야 의견 교환 및 협력 인정 - 중국민용항공국(CAAC)-미국연방항공국(FAA) 협력 강화 약속 ○ 지방협력 강화 약속
금융 안정 및 개혁	○ 중국과 외국금융기관이 인민폐 교역과 청산서비스 참여 인정 ○ 중국, 자본시장 발전 조치 추진 : 외국 금융기관의 주식회사 및 기금관리공사 지분비율 상승 인정, 외상독자 및 합자기업의 사모펀드 허용, 해외투자자 직접 투자은행간 채권시장 합격 허용 등 ○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 안정을 위한 9개항 노력 약속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효과적인 소통과 정보교류 확대 - 공적공사 국가간 회계감독 추진 확대 - 양국 증권감독기관간 법집행 협력과 정보공유 확대 - 양국 증권감독기관간 리스시장 감독을 위한 대화와 협력 확대 - 장외교역 파생기구 시장 개혁 약속 - 미국내 중국계 은행의 자금집행 표준 관련 소통과 대화 확대 - 중국, 금융상품 및 서비스 행정심사절차 간소화와 투자자보호 강화 약속 - 해외 기화교역소의 중국내 대표처 설립 허가 - 미국, 감독관리 규정을 거쳐 볼커룰(Volcker Rule) 실시

글로벌 협력 및 경제 거버넌스	○ 미국은 ‘16년 항저우 G20회의 지지하고 중국측과 협력 기대를 표명하고, 양국은 주요 기타 G20 논의를 수용 - 1)거시경제정책협력 강화, - 2)정책수단, 재정, 화폐정책을 통한 성장과 안정 달성, - 3)혁신에 다른 기회 탐색, - 4)글로벌 경제·금융·에너지관리 개선, - 5)기후변화문제 해결 및 청결에너지원 개발, - 6)2030년 지속가능발전 일정 추진 등 - 기타 항저우 G20회의 결정사항 지지 확인 ○ G20 녹색금융연구팀 보고 지지하고 글로벌 금융통한 녹색활동의 도전과 기회 인정 ○ 수출 대출 국제사업팀의 성과를 인정하고 ‘16년 7월 제11차 전체회의중 일 반원칙 관련 후속 토론 지속 약속 ○ 파리클럽의 국제플랫폼 지위 인정하고 신흥 채권국 구성국 확대에 찬성 ○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제3국 융자 사업 협력 추진 하고 에너지, 농업, 위생분야 협력기회 발굴 확정 ○ ‘15년 9월 및 ’ 16년 3월의 기후변화공동성명 관련 저탄소기술을 위한 공 공자원의 우선적 보조와 장려 승인 ○ 양국의 비정부조직, 개인 및 공공기관의 녹색금융협력 추진을 주목하고 건축·에너지·은행·증권·기금관리 및 기타 업종의 공동이익 이행에 주목 ○ IMF의 2010년 분담금과 거버넌스개혁 방안의 정식 발효 환영, IMF 거버넌스 개선을 호소 ○ 미국, IMF의 인민폐 SDR 편입 결정 지지 - 양국은 IMF의 SDR 사용 확대 가능성 연구 지지 ○ 양측 금융기관의 자발적 적도원칙(赤道原則) 채용 환영
기타 대화와 협력	1)썩크탱크간 경제 논의, 3)화석연료 보조 협의, 5)국제 안전보험 처리, 7)對불법금융 금융시스템 보호, 9)反돈세탁감독(AML) 및 反테러융자(CFT) 협력, 10)인력자원사회보장부(中)-노동부(美) 협력, 11)미중안전생산·직업건강대화, 13)표준일치 기술협력, 15)원산지규정 협력, 17)중소기업협력, 19)지적재산권 협력 지속, 21)상용전자우편사기 대응, 23)검험검역분야 협력, 2)거시경제정책 교류협력, 4)보험업 협력, 6)미중 은행업 감독 협상, 8)反위조화폐 협력, 12)석탄공업협회(中)-노동부(美) 협력, 14)무역통계 기술교류 및 협력, 16)역방향 무역대표단 계획, 18)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찰단, 20)제7차 미중혁신대화, 22)세관 지적재산권 법집행 협력, 24)중의약 분야 협력

* 자료 : 중국 외교부, <제8차 중미전략경제대화 경제대화 분야 성과 공동설명서>(2016년 6월 9일)

[참고6] 미중 통상관계 일지(2017년 1월 ~)

일시	내용	비고
‘17. 1. 3 미국	트럼프,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당선축하 전화 받고 환담	트럼프-차이잉원 통화
‘17. 1. 17 중국	시진핑 주석, 다보스포럼에서 보호주의 반대 천명 -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보호무역주의 반대 해야”,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격” 지적	다보스포럼(17~21) 개막 강연
‘17. 1. 19 중국	상무부 기자회견, 미중간 상호의존도 높아 협력이 유리 - “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你中有我, 我中有你) 이익의 교차융합구조 형성되었고, 중미간 교류의 이익 많음. - “미국에 260만 일자리 창출, 미국 GDP의 1.2%인 2,160억 달러 공헌, 미국의 대중수출 2026년 3,690억 달러→2050년 5,200억 달러 예상, 중국 대미수출로 미국 물가 1~1.5% 인하, 미국 일반 가정 대중수입으로 850달러 이상 비용 절약(중미무역 전국위원회 공동보고서)	상무부 순지원(孫繼文) 대변인 기자회견 (‘17. 1. 19)
‘17. 1. 26 중국	리커창 총리, 영문 기고문 통해 경제개방의 중요성과 중국의 개방 경제 지속 의지 강조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선도하면서 개외개방을 확대, 위기대비능력 강화, 부가세 개혁 등 추진 - 투자개방 확대, 중서부 및 동북지역 투자 유도 - 구조조정, 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도 활발 -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중국은 안정과 성장의 앵커로서 경제의 개혁, 개방, 자유무역 지속 의지를 천명하는 바임 * Li Keqiang, “Economic Openness Serves Everyone Better” : How China plans to face a world of uncertainties“, Bloomberg Businessweek, 2017.1.26	Bloomberg Businessweek (2017.1.26) 기고문
‘17. 1. 31 미국	트럼프, 중국과 일본의 환율조작 비난 -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열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백악관, 제약회사 CEO들과 면담중
‘17. 1. 31 미국	브론스테드 주중미국대사 지명자, 트럼프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늦어질수도 있다고 지적. - “내가 보기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가고 있다. 분명, 환율과 관련해 항상 몇가지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많 은 이슈가 있다.”	Terry Bronsted 주중 미대사 지명자, 아이오와 에탄올산업회의 인터뷰 (Bloomberg 2/1)

일시	내용	비고
‘17. 2. 3 중국	○ 트럼프가 <불구가 된 미국>에서 중국을 적으로 묘사하고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파괴, 상업 간첩활동 종사,취업기회 빼앗았다고 지적. 중국의 반응은? → 미국내 선거기간에 나온 발언에 중국은 평가 없음. 우리는 취임 이후 대중정책임. 중미경제관계 발전은 우연이 아님. 한편 양국 정부, 인민, 경제계 공동 노력의 결과, 다른 한편 이익이 남는 곳으로 가는게 경제법칙. 작년 미국기업의 대중투자 계속 대폭 성장했는데 이이 증명. 중미경제관계의 발전은 양국 인민에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음. 이러한 추세 유지가 유리. ○ 트럼프, “화폐조작” 지적시 일본·중국을 거론. 입장은? → 중국은 종래 화폐전쟁을 통해 무역경쟁력을 높이려 하지 않았음. 우리는 화폐전쟁을 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보아 이러한 화폐전쟁은 중국 자체에 불리하다고 봄. 중미경제간 존재하는 일부 차이는 우호적 협상으로 해결 가능. 사실이 증명하듯이, 중미관계의 발전 덕분에 양국 경제계 및 인민은 실제 혜택을 입었음. 이러한 양호한 국면과 태세는 유지·보호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함.	外交部 대변인 루강(陆慷) 기자회견(2.3)
‘17.2.8 미국	○ 트럼프, 취임 20일 만에 시 주석이 보낸 취임 축전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희망 의사 전달 - 中 외교부 루강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국 인민에 보낸 명절 메시지를 높이 평가한다”, “중국은 중미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시 주석이 말했듯 양국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세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데 특수한 공동책임이 항유”,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고 협력은 양국의 유일한 옳은 선택” 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최초 대중국 메시지
‘17.2.9 미국	트럼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다 보도 - 교도통신 보도 인용, “남중국해 문제와 무역불균형 등 미국과 중국 간의 과제 해결을 위해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	머니 투데이, YTN, KBS 등 2월 10일 인용 보도
‘17.2.10 미국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대단히 화기애애했고, 양국 국민의 안녕을 기원”, “두 정상은 양국에서 각각 만나자는 초청도 교환”(백악관) 중, 외교부, 긍정적 평가 내용 홈페이지 게재(2/10)	트럼프-시 주석 첫 통화
‘17.2.14 미국	FT, “트럼프의 입장 주류로 기울어” 사설 발표(2/14) - ‘하나의 중국’ 지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입장 완화. 일본에 대해서도 TPP 탈퇴 유지하되 미일 안보협력 지속 확인.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도 과거의 단호한 태도에서 완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트럼프 시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FT, 2/14, 사설

일시	내용	비고
‘17.2.14 미국	미 상무부, 환율조작을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하는 방안 추진(WSJ, 2/14) -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에서 벗어나 유연한 보복수단으로 활용 관측 <== 중 외교부 답변 : 일일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환율 조작 통한 수출도모 안하고, ▲위안화 환율결정시스템 개혁 진행중이며, ▲객관적 판단 필요” 답변	WSJ, 연합뉴스 등 인용보도
‘17.2.23 미국	트럼프,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	로이터통신 인터뷰
‘17.2.23 미국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환율조작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재무부의 4월 환율정책보고서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 ○ 므누신 재무장관, “우리는 재무부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환율조작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프로세스대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을 것”	○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 CNBC방송 인터뷰
‘17.2.24 중국	정창 외교부 대변인, “위안화 환율문제에서 우리의 입장 여러차례 표명. 우리는 위안화 환율 형성기제 개혁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환율의 합리적 균형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할 것. 중국은 경쟁적인 화폐절하를 통한 무역이익 추구 의도가 없으며 인민폐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될 기초도 없음” - 트럼프의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 정례기자회견 (2월 24일)
‘17.3.1 중국	정창 외교부 대변인, “중미 경제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과 공영, 중미무역전국위원회 지적대로 2015년 중미간 무역과 상호투자는 미국에 260만개의 일자리 창출” - 28일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이 6만개의 공장 문을 닫았다고 말한데 대한 기자의 코멘트 요청에	○ 정례기자회견 (3월 1일)
‘17.3.1 미국	USTR, ‘2017 Trade Policy Agenda’ 발표, 4개 정책 우선순위 중 4번째 의제로 중국을 집중 거론. ○ 2000년 이후 미국의 무역변화 서술중 중국과 관련된 5개 변화 지적 - 2000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 - 대중 상품 및 서비스무역 적자 300배 증가 - 미 평균중간층 16년 전보다 소득 감소 - 2017년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 2000년 대비 500만개 감소 - 중국 WTO 가입 이전 16년간 미국 산업생산 71증가한 반면 중국 가입후 16년간 과거에 증가율에 비해 9% 감소 ※ 중국관련 실제 조치는 보고서에 없음	○ USTR 연례보고서, (3월 1일)



작성자

◆ 중국사업단 정환우 조사담당관



KOCHI자료 17-003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중국사업단
(02-3460-7412)

ISBN : 979-11-6097-127-9 (93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